

# 성경적 가정회복을 위한 인형치료 기독교적 적용

유 재 성  
〈목회상담학·교수〉  
jsyoo@kbtus.ac.kr

## I.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 사회는 ‘결혼은 감소하고 이혼은 팽배’한 ‘결혼과 가정의 위기시대’를 지나고 있다.<sup>1)</sup> 각양 개인적 이유나 현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혹은 가족 관계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sup>2)</sup>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나아가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해 결혼을

- 
- 1)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박성민, “20대 미혼 남녀 60%, ‘결혼 하든, 하지 않든 아이 낳지 않겠다,’” 「동아일보」, 2019년 12월 4일; 강승현, “퇴직하니 찬밥신세…황혼이혼, 남편의 반란,” 「동아일보」, 2016년 5월 21일.
  - 2)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고도예, “‘아빠가 몰랐어, 미안해’ 상담이 끊은 학대 악순환,” 「동아일보」, 2019년 11월 19일; 신관영, 손효주, “자살자 10명 중 6명엔 가정폭력 아픔이…,” 「동아일보」, 2014년 3월 20일; 이한세,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니…,” 「중앙일보」, 2019년 11월 9일; 박지현, “광주 7세 여아, 인천 초등생, 부천 여중생 아동 학대사건…그 뒷이야기,” 「조선일보」, 2016년 3월, 6일; 김수경, “패륜 범죄 5년새 2배,” 「조선일보」, 2018년 5월 7일.

포기하고,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사회환경적 여건의 문제로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sup>3)</sup>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현대인의 결혼과 가정은 전통적인 모습과 크게 달라지고 ‘나’ 중심의 행복과 만족 강조, ‘나 홀로’ 문화가 확장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경우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예외가 아니다.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문화를 배울 곳이 많지 않고, 많은 경우, 교회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교육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의 현실이 긍정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도리어 그 영향을 받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각종 가족 관계 갈등과 위기 상황들이 비(非) 신앙인들의 경우와 그리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 동안 성경적 가정구축 혹은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sup>4)</sup> 다양한 가정사역 및 기독교 상담 접근들이 시도되었고, 많은 가족 구성원들과 가정들이 변화와 성장, 회복을 경험한 것이 사실이다.<sup>5)</sup> 그렇지만 급변하는 21세기 사회문화적 환경 속

---

3)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최혜령, “결혼 안하는 한국·혼인건수 역대 최저,” 『동아일보』, 2019년 3월 21일; 박은서, “솔로인 이유·男 ‘돈 때문에,’ 女 ‘자유 위해,’” 『동아일보』, 2019년 3월 25일.

4) ‘성경적 가정’이란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하여 서로 소통하며 순기능적인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Jack and Judith Balswick,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조은숙,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서울: IVP, 2006).

5)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Charles Sell, 『가정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Norman Wright, 『행복한 부부대화의 열쇠』, 차호원, 차혜숙 역 (서울: 두란노, 1993); 유재성, 『홈빌더스』 (서울: 요단출판사, 2013);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편, 『기독교(목회)상담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9).

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나 가치들이 다양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는 행복한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기능적인 가정을 구축할 수 있을지, 관계가 흔들리거나 파괴된 역기능적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더욱 창의적으로 알리고 치유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건강한 개인과 가정,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다.

그 동안 성경적 가정회복을 위한 노력들은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관계갈등, 성격차이, 이혼예방을 위한 강의와 상담 등 교육적인 접근 및 언어 초점의 대화를 통한 상담개입에 주로 집중되었다. 강렬한 감정적 억압이나 충동, 경직된 방어적 사고기제, 각종 중독, 성폭력이나 학대, 신경증적이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증상이나 문제들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정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다. 일반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와 임상적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다소 미비하였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상처를 겪고 강렬한 혹은 얼어붙은 신체·정서적 증상, 심리적 혼란, 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그런 증상이나 무의식적 억압, 고통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내면의 감정과 사고, 무의식적 방어기제 등을 의식화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그림이나 놀이, 음악 등과 같은 ‘매체’ 혹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하나가 바로 사람이나 동식물, 자연의 모형을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는 인형치료이다.<sup>6)</sup>

6) 최광현, 「부부·가족 인형치료」(군포: 한국인형치료연구회, 2018), 8-9. ‘인형’(人形)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모형’이다. 따라서 동물모형은 ‘인형’이 아닌 다른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일반화된 뚜렷한 용어가 없어서 사람과 동물, 자연 등의 축소 모형을 통칭하여 영어의 한글 발음 그대로 ‘피규어’(figure)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인류는 역사 초기부터 동물이나 자연, 사람의 모형을 통해 자신을 상징화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투사하고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형치료는 이러한 인간 본연의 속성을 활용하여 무의식적 억압이나 내면에 축적된 감정을 풀어내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한다. 임상가들은 그 동안 갈등과 상처, 학대, 트라우마 등으로 얼룩진 내담자들을 돕는 구체적인 도구로 다양하게 인형치료를 시도해왔다.<sup>7)</sup>

연구자는 본고를 통해 인형치료 접근이 어떻게 성서적 가정회복을 위한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상담개입 방안의 하나로 적용 및 활용될 수 있을지 크리스천 라이프웨이 상담코칭<sup>8)</sup> 접근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크리스천 상담사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속성을 담아 창조하시고(창 1:26-27)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형들에 내담자 자신의 이미지나 정서, 가족과의 관계 경험들을 투사하여 동일시하거나, 인형 선택과 세움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적인 가정 구축 및 회복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하고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라이프웨이 접근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장

---

‘인형’은 이 모든 피규어들을 포함하는 ‘장난감’으로 인식되어왔고, 포괄적인 의미로 ‘인형치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인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맥락에 따라 ‘모형’ ‘피규어’ 등의 용어들을 교호적으로(reciprocally) 사용하고 있다.

- 7) 강소민, 선우현, “놀이치료에 의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인형심리진단평가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2) (2019): 9-42; 노경희 외 2인, “우울한 아동에 대한 인형치료 진단평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1) (2016): 109-22.
- 8)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대전: 하기서원, 2015). 여기에서 ‘크리스천 상담’이란 게슈탈트나 현실요법과 같은 다양한 일반 상담 접근과 대비되는 하나의 상담모델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어떠한 상담모델을 취하든 내담자와 문제상황 이해 및 치유개입을 할 때 일반 심리학적 차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공동체적 맥락에서 ‘영·혼·육’을 포괄하는 통전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이며, 온전하고 전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코칭적 접근이다. ‘나’가 중심된 육신적 삶의 방식(lifeways)을 성찰 및 내려놓고(갈 5:24), 영적인 삶의 방식(Lifeways)을 성찰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성찰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은총’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해결중심상담, 자연적 회복(natural recovery), 회복 탄력성, 외상후성장 관련 연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sup>9)</sup> 하나님의 ‘일반은총’ 맥락에서, 비록 한계는 있을 지라도, 회복과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며 라이프웨이 상담을 실시한다.<sup>10)</sup>

라이프웨이의 두 번째 방식은 신앙을 갖지 않은 일반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옛 사람’(old self)에 속한 육신적 삶의 방식을 반복하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적 접근이다. 이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생과 원가족 환경, 성장기를 거치며 저마다 미충족 정서와 미해결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반복되고 굳어지면서(homeostasis) 저마다 독특한 삶의 준거틀(frames of reference), 내적 심리도식, 생활

9)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L. Sobell and others, “Natural Recovery from Alcohol and Drug Problems: Methodological Review of the Research with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ddiction* 95(5) (2000): 749-64; 유상희,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2) (2019): 155-84; Richard Tedeschi and Lawrence Calhoun,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2004): 1-18.

10)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하나님의 ‘특별은총’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일반은총’의 영역에 있다. Franz Pieper, “The Means of Grace,” *Readings in Christian Theology*, vol. 3, The New Life, ed. Millard Ericks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115-25. 따라서 그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눈높이 상담접근’을 하되 근본적으로 내담자와 이슈 이해 및 상담 접근은 영·혼·육을 포괄하는 전인적 맥락에서 인식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턴, 성격 등을 형성한다.<sup>11)</sup>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의 어떤 부분들은 무의식에 억압되거나 각종 방어기제를 통해 외면, 회피, 억압 혹은 위장되어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일상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거현재의 정서적 에너지는 위기적 상황이나 스트레스, 감정반동을 일으키는 상황일 때 매우 강력하여 정상시의 이성적 언행심사, 신앙적 결단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임상가들이 전통적으로 과거의 문제상황을 진단·분석하는 것처럼 라이프웨이 상담사도 문제를 유발하고 지속하는 육신적 삶의 준거틀 혹은 패턴을 탐색하며, 문제 속에서도 현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된 내담자의 강점 혹은 자원을 찾는 작업을 한다.<sup>12)</sup>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그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 및 자신의 자원과 강점들을 통합하여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라이프웨이의 세 번째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와 유사하다. 다만 정서적·관계적 취약성으로 인해 과거작업이 어려운 상황의 내담자, 자신의 이슈나 회복목표를 명료하게 자각하고 작업하기 어려운 내담자 혹은 그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술이나 음악 등과 같은 표현예술이나 모래, 게임 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내담자나 가족들을 인형치료 접근을 통해 정서적·관계적 회복 및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방안을 다룬다. 다양한 인형들을 활용하여 가족의 무의식적 혹은 역기능적 관계체계와 정서적 융합과정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성경적 결혼과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1)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226-7. 다음 자료도 참고하라. Jeffrey Young and others, 「심리도식치료」, 권석만 외 5인 역 (서울: 학지사, 2005).

12)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238-45.

## II. 인형치료에서의 상징과 의미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물이나 자연의 그림, 모형 등을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고대의 동굴이나 문서들에서 이러한 흔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아가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장난감 인형들을 만들어 인간의 대체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형에 대해 최광현과 선우현은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인간의 발명품 중의 하나로 의식주와는 상관없는 심리적 도구였다”고 판단하였다.<sup>13)</sup> 인형을 내면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표현하고 위안을 얻기도 하는 자기감정의 투사 도구로 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형을 바늘로 찌르며 자신의 분노나 저주 감정을 투사하는 경우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교류하셨다(창 1:26-27; 2:16-25). 그리고 양, 염소, 뱀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셨다. 성경은 사람을, 비록 죄로 말미암아 파손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언약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눅 10:27).<sup>14)</sup>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다른 사람들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투사하며 소통해왔다. 자신을 닮은 혹은 자신의 느낌,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인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표현해왔다. 의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슈, 직

13) 최광현, 선우현, 「인형진단평가」(군포: 한국인형치료연구회, 2017), 1.

14) James Garrett,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92-107, 235-40.

면하기 쉽지 않은 문제 상황일수록 인형과 같은 상징체계를 활용하곤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인형은 단순한 '심리적 상징체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의 상징 및 소통의 도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동물이 “인간과 ‘심리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 신화, 상징의 영역”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물상징은 ‘종교상징’으로 개념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적 맥락,” 나아가 하나님과의 연계성을 풍부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sup>15)</sup>

실제로 인형과 동물 및 자연 모형은 인간 내면이나 관계적 맥락만 아니라 영적 차원을 상징하고 그 의미들을 감각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양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무기력하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나아갈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다(사 53:6). 그렇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현실을 잘 상징해주고 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전하게 따라갈 때 육신적 생명을 얻고,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상징 혹은 이미지로 성경에 등장한다(시 23편).

양에 비해 염소는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며,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로 소개된다(마 25:31-46). 뱀은 인류 시작 때부터 거짓되고 교활하며 파멸로 인도하는 사탄의 상징과 이미지로 사용되었다(창 3:1-4). 이 외에도 성경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 부지런한 개미, 푸른 초장, 시냇물, 나무, 돌, 번개, 천둥, 비, 대지 등 수많은 동식물과 자연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의미들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미술작품, 문학, 동화 등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에는 미신들과 숭배 대상으로 표현된 것들도 많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세상

---

15) 최광현, 선우현, 「인형진단평가」, 3.



의 모든 생명과 자연은 하나님의 형상과 섭리를 상징 및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형치료를 할 때 다양한 모형들을 활용하여 인간의 무의식과 사회문화 속에서 인식되고 투사된 동식물과 자연 등의 원형적 상징과 이미지들을 탐색하되 전통적인 이미지나 상징 투사를 무조건 심리적으로만 진단하고 적용하기보다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여 영적인 통찰을 더하여 전 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담사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담자나 가족의 상태를 주도적으로 진단하고 해석해주기 보다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인형들을 보며 어떤 느낌을 받는지, 어떤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르는지 등을 질문하며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의식화하여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그러한 요소들을 ‘알고 싶어 하는 자세’로 탐색하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찰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6)</sup> 그럴 때 상담사는 물론 내담자나 주위 가족들조차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들이 드러나고, 치유적 교훈이나 통찰들이 나올 수 있다.

인형의 상징과 의미 탐색은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정형화되거나 표준화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면 역동을 주관적으로 탐색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상담사 또한

16) Insoo Berg and Yvonne Dolan, *Tales of Solutions* (New York: W. W. Norton, 2001), 95-119. 참고로, 쥐는 전통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하며 혐오스러운 동물로 인식되어 쥐띠인 사람들은 자기가 쥐띠임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말띠 여성들에 대해 말(horse)이 주는 이미지를 투사하여 여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거나 그럴 것이라는 추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쥐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이기도 하다. 말도 여성에게 긍정적인 의미와 이미지를 주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다. 내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으며 정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내담자일수록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내면의 감정과 사고, 이미지들을 투사하며 인형치료 작업에 임하므로 상담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른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형치료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동물과 자연 모형들의 상징과 이미지, 의미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최광현, 「인형치료」, 108-31; 최광현 선우현, 「인형진단평가」, 18-35.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소민과 선우현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인형심리진단평가를 할 때 전형적이면서도 내담자가 갖게 된 인형들의 상징과 의미를 세 영역에서 탐색하였다.<sup>17)</sup>

먼저, 자아탐색 영역이다. 내담자에게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모형 네 개를 선택하게 하고 그러한 동물들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다. 그 동물들의 어떤 점이 자신과 닮았다고 보는지, 왜 ‘나’라고 생각했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소망하는 동물모형 네 개를 선택하고, 그 동물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물으면서 내담자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 영역이다. 첫 번째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의 가족을 상징하는 동물모형을 선택하고 이유를 탐색한다. 그리고 가족동물들의 위치와 거리를 살피며 친밀한 동물들을 세우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한다. 이어서 소망하는 가족동물을 세우고 그 이유를 탐색했는데, 성인 내담자의 경우 원가족 동물을 탐색하는 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학대행위자 혹은 문제 대상자와의 관계 영역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동물로 세울 것 같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언제 어떻게 ‘나’를 보고, 힘들게 했는지, 그가 어떤 동물이 되면 좋을지 탐색하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한다.

최광현은 문제 대상자와의 대화 혹은 직면을 ‘치유적 고백’과 연결한다. 이 고백은 인형을 통해 배우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그에 의하면, 내담자는 이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게 되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있던 마음을 끄집어내게 된다. 이를 통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되며 변화를 위한 치료적 결단에 이르게 된다.”<sup>18)</sup> 치유고백은 내담자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상담사와

17) 강소민, 선우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인형심리진단평가 사례연구,” 18.

18) 최광현, 「부부·가족 인형치료」, 77.

함께 진솔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가족상담을 하면 전통적으로 가족의 삼사 세대에 걸친 관계패턴을 살피는 가계도 분석과 가족 하위체계 간의 정서적 융합, 관계 경계선, 가족 간 파워 불균형,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행동패턴 등을 살피는데 주력한다. 하지만 정서적 융합이 강하거나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 등을 통해 내면에 깊은 갈등이나 두려움, 무의식적 방어기제 등이 강화되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식화하거나 차분히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된다. 저마다 자신의 주관적 관점과 입장을 강조하거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그럴 때 다양한 모형들을 활용한 인형치료 접근은 의식·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내려놓고 개인이나 가족구성원들 모두에게 가족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사는 매체를 활용한 상징과 의미 탐색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출할 수 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언어적 상담접근의 한계를 넘어 안전하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의식과 무의식에 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취약해진 자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호기심을 갖고 치료 과정에 몰입하게 할 수 있다.<sup>19)</sup> 이처럼 동식물이나 자연 모형들은 강렬한 정서적 반응, 경직 혹은 억압된 심리적 방어기제로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 덜 위협적인 방식으로 치유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

19) Ibid., 45, 46.

### III. 인형치료의 기독교적 적용-1: 육신적 준거틀(frames of reference) 탐색

상담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심리적인 동시에 영적인 과정이다. 사람이 그렇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사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주요 호소를 전인적으로 그리고 공감적으로 경청하며 신뢰 기반 라포(rapport)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0)</sup> 동시에 내담자의 유형과 이슈를 파악하며 문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개입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sup>21)</sup> 이때 내담자나 가족 구성원들의 상태가 언어 중심의 개입보다 피규어를 활용한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형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미술이나 음악, 놀이를 통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인형을 활용한 상담접근도 내담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 ‘고객형’ 내담자는 인형이 주는 상징과 의미, 투사를 탐색하며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지만, ‘불평형’과 ‘방관형’ 혹은 무관심형 같은 비자발적 내담자는 지지와 공감을 하며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sup>22)</sup>

가족 인형치료가 시작되면, 상담사는 먼저 문제 호소 가족원으로 하여금 자신 및 가족 구성원들과 유사한 느낌이나 이미지를 주는 인형들을 선택 및 상담 테이블 위에 세우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선택들을 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이때 내담자가 가족의 이미지가 투영된 사람모형으로 작업하는 것이 감정적 혼란이나 방어적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면 동물모형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인형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물

20) 유재성, “기독교(목회)상담의 상담적 개입과 사례개념화,” 「기독교(목회)상담의 이해」,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편 (서울: 학지사, 2019), 269-72.

21) Ibid., 272-9.

22)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201-6; 최광현, 「부부·가족 인형치료」, 65-7.

모형을 먼저 세워 문제상황을 탐색 및 진단한다. 그리고 실제 가족원들을 상징하는 사람모형을 택하게 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상담사는 이때 내담자의 심리적·감정적 상태가 인형치료를 하기에 적절한지, 상담 환경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유로우면서도 안정감을 갖고 “무의식적인 욕구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인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인형치료가 진행되는 공간은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인 힘이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sup>23)</sup> 동시에 인형치료사의 내면과 ‘지금-여기’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담자가 인형작업에 익숙하지 않거나 내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차분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담 테이블에 라이프웨이의 ‘하나님 나라 도식’이 그려진 테이블보를 올려놓음으로써 ‘지금-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상기하도록 시각적인 자극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담자는, 이를 통해, 고통스러웠던 과거 상처의 현장에 다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10:10) 과거의 현장을 돌아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과거 상처 이야기가 구속적으로 재경험 및 다시 쓰여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sup>24)</sup>. 이때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마 28:20) 주님의 모형을 문제 현장에 세우는 것도 내담자의 인형작업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상담사와 함께 인형을 통해 두려웠던 과거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동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23) 최광현, 「인형치료: 트라우마 가족치료에 대한 적용」(서울: 학지사, 2013), 107.

24)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245-7.

아울러 내담자는 테이블에 세우는 가족인형들의 이미지나 상징이 가족원들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가족과의 관계경험에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구축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인형의 상징과 이미지를 실제 당사자와 동일시하거나 문제사고와 감정에 융합시키면 기존의 부정적 준거틀을 강화하는 역기능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세우는 가족동물은 동물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원형적인 이미지를 통해 가족에 대한 무의식을 의식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혹은 무의식에 묻어둔 가족갈등이나 상처, 비밀, 미해결 이슈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실제 가족과 내담자가 인형에게 투사하는 이미지나 의미를 동일시하기 보다는 외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면에서 상담사는 내담자가 세운 인형들의 상징이나 의미를 자신이 평가 혹은 진단하기 이전에 내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인식, 기억을 듣고 보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다.

가족 인형들이 세워지면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인형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는지 등을 질문한다. 이때 가족 인형들의 위치, 방향이나 관계의 거리 등에 주목한다. 이것들의 미세한 변경만으로도 내담자의 내면에 의식화되는 감정이나 기억,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가족 이미지를 잘 표현하도록 도와야 한다.<sup>25)</sup> 인형의 표정이나 팔, 다리, 자세, 손가락의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면의 의식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인형의 선택이나 세우기는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상담사는 이러한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 내담자의 인형 세우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프고 힘들었던 어떤 문제나 상처

25) 최광현, 「인형치료: 트라우마 가족치료에 대한 적용」, 138.

가 있었는지, 반복되는 관계, 감정, 언행, 사고의 준거틀이 있었는지, 주로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진행되었는지 등을 탐색하며 내담자와 가족상황을 평가 및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상담일지에 기록하거나 형식을 갖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는 보통 현가족 인형을 먼저 세워 탐색하고, 나아가 원가족 인형을 세워 작업하도록 한다.<sup>26)</sup> 이때 가족인형들이 세워지는 기본 모습은 부부 하위체제와 자녀 혹은 부모-자녀 간 하위체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족 간 삼각관계나 파워 이슈, 가족 삼사 대에 이르는 위계적 도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족 희생양은 가족동물의 중앙에 위치하여 부정적 반응을 집중적으로 받거나, 한 쪽 구석에 배치하여 소외 혹은 단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앙이 돈독한 내담자는 가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 성경책 등의 모형을 세워 영적인 초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인형 세우기를 통해 표현되는 관계의 유형은 대개 몇 가지로 분류된다.<sup>27)</sup> 첫째는 '갈등과 대립'이다. 대개 부부 하위체제나 부모-자녀 관계체제에서 많이 발생한다. 자녀끼리 혹은 가까운 친지나 외부의 의미 타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폐 되거나 억압, 혹은 의식화되기를 회피했던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는 '희생양 유형'이다. 가족 내에 흐르는 심리적 불안과 갈등의 투사대상이 되거나, 희생적으로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소속감 결여 유형'으로, 가족과 등을 돌리고 있거나 반항하는 문제적 역할을 맡는다. 넷째는 '위계질서 혼란 유형'으로, 자녀가 부모를 챙기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섯째는 '다중적 자아 유형'으로, 자신을 상징하는 여러 인형을 선택

26) Ibid., 142.

27) Ibid., 155-79.

함으로써 스스로 다중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섯째는 '원형적 상징 유형'으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하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머니를 이상화하는 희생적 동물상징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분화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내면을 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내담자의 자기 정체성과 관계적 위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의 하나가 '고양이 아빠,' '생쥐 엄마'처럼 가족원들에 대한 이미지 혹은 느낌을 반영한 창의적인 수식어를 동반한 별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별칭과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별칭을 도출하여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담사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공감적 경청을 하면서 '한 발자국 뒤에서 나눔을 촉진하는 질문'(leading one-step behind)을 하며 무의식과 방어적 반응 뒤에 가려졌거나 억압, 회피, 혹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속사정을 의식화하고 자각하도록 돕는다.

이때, 부부·가족 상담사는 단순히 누가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상황을 야기했는지,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인지를 규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문제상황이 가족 관계체계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 순환론적 체계관점의 질문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문제는 대부분 가족 한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거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 자기 입장 강요 등으로 대화가 흘러갈 수 있다. 역기능적 삼각관계가 재현되거나 서로 자기 관점의 이야기만 나열하면서 가족 내 갈등과 상처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일반적인 부부·가족상담과 마찬가지로 인형을 활용한 상담개입을 할 때도 가족 인형들마다 돌아가며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비효과적이다. 그 보다는 문제증상과 갈등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역기능적 관계체



계 패턴이나 반복된 준거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sup>28)</sup> 이때 가족관계의 경계선이나 낮은 분화수준의 세대 전수, 가족의 파워와 위계, 정서적 삼각관계 등이 야기하는 역기능적 관계체계 패턴과 이로 인해 가족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 증상들은 가족이 방어적 심리게임을 하는 경우 더욱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형을 활용한 상담접근은 가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험을 보다 차분하게 재연하고 정서적 융합에서 한 걸음 분리하여 자신들의 관계체계 패턴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심리적 얽힘을 풀어 치유하고, 새로운 관점의 발견과 창의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인형치료를 진행할 때 상담의 초점은 문제의 원인제공자 발견이나 서로의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 보다는 갈등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관계, 감정, 언행, 사고와 결과 및 가족체계 패턴을 탐색하도록 한다. 나아가 자신이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경험했으며, 그때 가족들에게 기대했던 것,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나누고, 실제 상황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인형을 통해 시도하게 하는 치료적 작업을 한다. 아울러 그때 가족들은 저마다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졌는지, 당시 자신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지, 지금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교차(crisscross) 탐색하고 함께 그것을 시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sup>29)</sup>

28)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193-5; 유재성, “기독교(목회)상담의 상담적 개입과 사례개념화,” 283-4. 가족원에게 일어나는 문제증상들을 찾아내고 정의(naming)하는 것은 그러한 증상들을 반복하는 패턴 혹은 준거들을 탐색하고 분화된 대처방안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29) Insoo Berg and Therese Steiner,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상담」, 유재성, 장은진 역 (서울: 학지사, 2009), 141-6. 이러한 치료적 개입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가족원 혼자라도 '빈의자' 기법처럼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나누며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인형치료 접근은 내담자와 가족 구성원, 문제 대상자를 상징하는 인형을 세우고 특정한 인형을 세운 이유와 소망을 탐색하며 진단 평가를 하는 과정을 넘어 과거의 문제경험과 상황을 재방문하여 '지금-여기'에서 재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재저작하는 치유적 경험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 대화' 재연을 통해 그 동안 지속되었던 투사적 관계방식을 탐색하고 재경험하는 치유적 작업을 할 수 있다. 가족들이 함께 상담에 임한 상태라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개별적으로 상담에 임한 경우라면 '빈의자' 접근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 부모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인형을 세우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필요들을 표현하도록 촉진한다.<sup>30)</sup> 당시에는 하지 못했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해보는 것도 좋다. 많은 경우, "결혼생활에서 좌절감을 느끼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계속 요구해오던 것들은 … 자신들의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일 수 있다. 이 대화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욕구 좌절이 성장하여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고, 배우자에게 투사된 욕구를 자각하고 해소하는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결혼생활 태도를 깨닫게 되면서 배우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 의식적인 결혼생활"을 하도록 돕는다.<sup>31)</sup>

라이프웨이 상담사는 이처럼 다양한 인형들을 활용하여 문제상황과 관

30) 부모-자녀대화를 할 때,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느낀 좌절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비난이나 원망, 부모 탓,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이프웨이 '신바람' 대화기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나' 문장으로 표현하고, 당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혹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긍정적인 내용을 소통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여기'에서 시도함으로써 미해결된 이슈, 미충족된 정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191-201, 247-51.

31) 최광현, 「부부-가족 인형치료」, 76. 이러한 관점의 대화모델은 다음 자료를 보라. Wade Luquet, 「이마고 부부치료」, 송정아 역 (서울: 학지사, 2004).

련된 자신과 관계대상들 이해 및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육신적 삶의 준거들을 탐색하려고 한다. 이러한 준거들은, 많은 경우, 살면서 충족되지 못했던 기대나 원망, 무섭고 두려웠던 상처, 고통스러웠던 트라우마 등과 연결된 정서적 방어기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발생하는지 자각하고 분화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대상이나 상황은 달라도 유사한 반응을 반복하게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아도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는 성경 메시지처럼(잠 14:12; 16:2), 자신은 과거와 달라졌고 합리적이며 올바른 반응을 한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예전 삶의 역기능적인 방식을 끈질기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존재이지만, 과거의 미해결 이슈나 무의식적 억압, 충동이 습관화된 정서적 준거들이 발동되면 그 추동(drive)이 이성적 판단이나 의지를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성화된 마음의 습관을 만들고 뇌의 신경세포까지 습관화된 삶의 방식에 반응하고 또 그런 반응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된다.<sup>32)</sup>

그래서 삶의 변화를 시도해도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많은 경우,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딤후 3:7; 히 4:2; 5:12). 라이프웨이 전문가가 육신적 삶의 방식을 지속하게 하는 정서적 준거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활의 새로운 삶의 준거들을 재구성하는 라이프웨이 코칭접근, 육신적 삶의 방식과 그 준거들을 자각 혹은 과거 미해결 이슈에 대한 치유작업과 함께 새로운 삶의 준거들을 구축하는 라이프웨이 상담접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이프웨이 상담사는 이러한 접근들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대개 순환적으로 통합 적용하려고 한다. 즉, 상담목표를 따라 내담

32)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라. Susan Greenfield, 「브레인 스토리: 뇌는 어떻게 감정과 의식을 만들어낼까, 정병선 역 (서울: 지호, 2004).

자로 하여금 단기에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도록 성장초점의 코칭접근을 하면서 자아상 강화 및 내적인 힘을 구축하게 한다. 그러면 내담자는 그만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이슈를 다루는 상담접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것은 다시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코칭적 상담 혹은 상담적 코칭을 통해 내담자는 과거 이슈들을 치유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sup>33)</sup>

#### IV. 인형치료의 기독교적 적용-2: 영성적 준거틀 작업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와 위기,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에서 비롯된 아픔이나 상처를 오랫동안 혹은 평생 어두운 무의식으로 밀어 넣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인형치료 접근은 다양한 피규어들에 투사된 상징과 이미지들을 통해 이러한 내면을 의식의 차원으로 이끌어내고, 내담자의 자기 인식과 가족 혹은 문제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육신적 삶의 준거틀 탐색 및 치유적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웨이 상담은 해결중심 상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양한 상담접근들에 비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들'을 직접 본 가롯 유다도 결국 그 삶이

33) 유재성, "상담과 코칭의 분리-통합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2009년 11월): 109-15.

바뀌지 않았다. 물론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움직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은 육신적 생각과 판단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눅 22:3-6).<sup>34)</sup>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옛 사람(old self)의 모습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혼란이 닥쳤을 때는 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그랬다(눅 22:54-60).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나는 끈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라며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탄식하였다(롬 7:24). 그래서 라이프웨이 전문가는 육신적 삶의 준거틀 외에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방안을 탐색하고, 그것이 새로운 생활 준거틀로 형성되도록 안내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변화의 해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및 부활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율법적·육신적 요구에서 해방시켜주었으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롬 8:1-2; 고후 5:17; 갈 2:20). 라이프웨이 코칭상담이 추구하는 변화와 성장의 해결접근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더라도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어서 인간 안에 작동하는 육신적 준거틀이 끈질기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인은 물론 크리스천도 변화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자주 드러내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육신의 정서적 욕구'(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즉 육신의 미충족 정서와 그 준거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고하였다(갈 5:16-17, 24). 라이프웨이 상담코칭의 치유와 회복의 해결접근이다.

34) 유재성, “기독교(목회)상담과 한국교회,” 『기독교(목회)상담의 이해』, 351-2.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프웨이 인형치료사는 기존의 인형치료 접근에 비해 영성적 삶의 준거를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중현실,' 즉 육신 안에 살면서 형성된 문제 준거를 혹은 삶의 패턴을 자각하고 직면하는 것을 넘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이중성찰'을 하고 주 안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촉진한다. 상담이슈 혹은 문제 증상과 관련된 '현재 및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패턴 자각'을 넘어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미-여기'의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현실 자각'을 하는 '구속적 성찰'(redemptive reflection)을 통해 주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고후 10:5)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믿음 언행을 하도록 돕는 '공동체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sup>35)</sup>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하기 때문이다(롬 8:5).

해결중심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종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무엇이 달라지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그것을 상담목표로 삼아 상담을 전개한다. 단기에 문제해결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전략적으로 변화와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이프웨이도 이와 유사한 접근을 하되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요삼 2) 영적 초점의 전인적 상담목표를 설정하고 그 변화된 미래의 삶을 '지금-여기'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안

35)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269-86.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회복사역의 맥락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성경적으로 탐색하는 '구속적 성찰'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Howard Stone and James Duke, 「일상에서 신학하기: 신자들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찰하는가」, 김상백, 김용민 역 (대전: 열도론, 2015).

내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라이프웨이 부부가족 상담코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부부 및 가족관계의 모습을 성찰하며 그와 관련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금-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내담 가족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 안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달라질지, 어떻게 달라진 생각과 언행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행동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프웨이 인형치료사는 내담자와 현재 및 원가족들을 상징하는 인형들을 세워 자신들의 관계체계적 준거틀, 가족 간 분화와 융합 수준, 관계 경계선, 역기능적 체계 간 교류와 힘의 불균형 등 다양한 요소들을 탐색하고 개입할 때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나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상담 전문가와 내담자 및 가족이 상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육신적·심리적 실재를 넘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재 안에서 전인적 상담개입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궁극적으로 상담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지식,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것임을 고백한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상담과 코칭을 ‘성령님의 프락시스’로 만드는 것이며, 일반 상담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의 하나이다.<sup>36)</sup>

따라서 라이프웨이 인형치료사는 과거와 현재의 상처 자리에 내담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하고 계셨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 인형을 문제 상황에 함께 세우고 이 영적 실재가 내담자와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36)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46-8.

탐색하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 테이블보 위에 새롭게 세워진 인형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내면에 어떤 생각, 어떤 울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아울러 문제 속에서 어떻게 현재까지 올 수 있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내담자와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과 자원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찾는 작업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담자와 가족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보았던 경험들을 과거엔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치유하심과 동행하심이 자신의 삶에 실재한 것이었다는 구속적 관점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된다.<sup>37)</sup>

라이프웨이 인형치료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 문제가 해결된 미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에 기반하여 성찰하고, 그때 자신과 가족, 문제 관계자의 인형은 어떻게 바뀔지, 그 관계의 위치와 방향, 거리, 자세는 어떻게 달라질지 등 영적 초점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모습을 새롭게 인형으로 세우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심리드라마’(psychodrama) 접근을 응용하여 ‘지금-여기’에서 시연하게 할 수 있다.<sup>38)</sup> 이때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과 ‘보혜사(the Counselor)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형들을 세워 드라마 시연을 하거나, 예수님 모형 안에 내담자 인형이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주 안에서 달라진 자신의 정체성과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실재와 그 역동’을 좀 더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갈 2:20).

이러한 인형 드라마 접근은 매우 강력하게 상처 기억과 이야기를 재구

---

37) 인형치료를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다시 성찰하고 재제작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김유숙 외 2인, 「놀이를 활용한 이야기 치료」(서울: 학지사).

38) 일반적인 심리드라마 접근에 더해 성경 메시지를 통합한 접근으로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Bjorn Kronendorfer, 「비블리오 드라마, 황현영, 김세준 역(서울: 창지사, 2008).



성하는 치유적 효과와 함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동력(推動力)을 제공해준다. 동시에 상당한 심리적·감정적 소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가급적 예정된 시간에 인형치료 개입을 마무리하고 회기 종결 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 날의 상담작업 요약과 실천과제를 작성하는 순서를 갖는다.<sup>39)</sup>

이때 내담자와 가족들은 인형들에 투사된 자기 이해와 관계적 이미지, 역할들에서 벗어나 현실 속 ‘자기’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형작업 속에서 전개되었던 내용들과 새롭게 깨달은 통찰, 의미, 교훈 등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상담사가 지지 및 추가, 보완하면서, 함께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변화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프웨이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몸에 밴 육신적 준거틀이 영적초점의 준거틀로 전환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습일지를 쓰게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내담자의 관계환경이 지지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sup>40)</sup>

## V. 나가는 말

연구자는, 본고를 통하여, 전통적인 가정사역이나 기독교 상담 접근들에서 비교적 다루지 않았던 개인적 혹은 가족 트라우마와 같은 이슈들을

39) 유재성,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263-97.

40) 내담자의 교회 공동체와 그 역할 및 관계체계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라. 유재성, “기독교(목회)상담과 한국교회,” 「기독교(목회)상담의 이해」, 331-63; Lawrence Crabb and Dan Allender, 「상담과 치유공동체」,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땅에서 그 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8).

인형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내담자나 가족들이 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정하며 무의식의 차원에 억압해 두었던 이슈들, 어쩌면 본인들도 잊고 있었던 상처들은 없어지지 않고 각종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관계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성경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와 가족들에게 대화 중심의 가정사역이나 상담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성경적 인형치료 접근은 유용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인형은 이미 대부분의 개인과 가정들에서 익숙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교육의 차원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인형을 도구로 크리스천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체감되는 결혼과 가정의 위기 상황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관련성과 독창성을 담지하고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일반적인 인형치료 접근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가능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아직’의 이중적 현실을 상담접근으로 담아낸 라이프웨이 상담코칭에 통합 적용하였다. 과거 삶의 방식(Old Lifeways)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New Lifeways) 찾는 이중성찰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 ‘지금-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지원하는 ‘비움과 채움’의 라이프웨이 성장 코칭상담을 기본 접근으로 소개하였다(고후 5:17; 엡 4:13-15).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일반인에게도 ‘비움과 채움’의 접근으로 기본적인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육신적 삶과 영적인 삶의 경계선을 오가며(롬 8:5-17) 육신적 준거들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다루고 영적 초점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치유적 상담코칭 접근 및 이것을 인형치료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방식 등 라이프웨이 접근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본고는 인형치료의 공간이 단순히 상징과 투사를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나 심리적 분석을 하는 공간을 넘어 삼위 하나님께서 실재하고 역사하시는 영적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문제현장에 내담자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영적 사실을 통해 그리고 ‘구속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고 과거 이야기를 재저작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거 고통과 두려움, 상처의 현장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인형들을 세우고, 나아가 내담자 인형이 예수님 모형 안에 들어가 반응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주 안에 거하라’는 메시지와 그 능력을 보다 실재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프웨이 인형치료 작업은 단순히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상징과 투사의 심리적 현실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적치유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리스천 인형치료 접근이 성경적 가정구축과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치유적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떠한 상담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들을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유숙 외 2인. 「놀이를 활용한 이야기 치료」. 서울: 학지사.
- 유재성. “기독교(목회)상담과 한국교회.” 「기독교(목회)상담의 이해」.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편, 331-63. 서울: 학지사, 2019.
- \_\_\_\_\_. “기독교(목회)상담의 상담적 개입과 사례개념화.” 「기독교(목회)상담의 이해」.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편, 265-97. 서울: 학지사, 2019.
- \_\_\_\_\_. 「현대 크리스천 상담의 이해와 실제」. 대전: 하기서원, 2015.
- \_\_\_\_\_. 「홈빌더스」. 서울: 요단출판사, 2013.
- 조은숙.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서울: IVP, 2006.
- 최광현. 「부부·가족 인형치료」. 군포: 한국인형치료연구회, 2018.
- \_\_\_\_\_. 「인형치료: 트라우마 가족치료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2013.
- \_\_\_\_\_, 선우현. 「인형진단평가」. 군포: 한국인형치료연구회, 2017.
- Balswick, Jack and Judith.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Berg, Insoo and Therese Steiner.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상담」. 유재성, 장은진 역. 서울: 학지사, 2009.
- \_\_\_\_\_ and Yvonne Dolan. *Tales of Solutions*. New York: W. W. Norton, 2001.
- Crabb, Lawrence and Dan Allender. 「상담과 치유공동체」.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Hauerwas, Stanley and William Willimon.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8.
- Garrett, James.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 Greenfield, Susan, 「브레인 스토리: 뇌는 어떻게 감정과 의식을 만들어낼까」, 정병선 역, 서울: 지호, 2004.
- Krondorfer, Bjorn, 「비블리오 드라마」, 황현영, 김세준 역, 서울: 창지사, 2008.
- Luquet, Wade, 「이마고 부부치료」, 송정아 역, 서울: 학지사, 2004.
- Pieper, Franz, "The Means of Grace." *Readings in Christian Theology*, vol. 3, Ed. Millard Erickson, *The New Life*, 115-25,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 Sell, Charles, 「가정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 Wright, Norman, 「행복한 부부대화의 열쇠」, 차호원, 차혜숙 역, 서울: 두란노, 1993.
- Young, Jeffrey and others, 「심리도식치료」, 권석만 외 5인 역, 서울: 학지사, 2005.
- Stone, Howard and James Duke, 「일상에서 신학하기: 신자들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찰하는가」, 김상백, 김용민 역, 대전: 엘도론, 2015.

## 2. 정기간행물

- 강소민, 선우현, "놀이치료에 의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인형심리진단평가 사례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2) (2019): 9-42.
- 노경희 외 2인, "우울한 아동에 대한 인형치료 진단평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1) (2016): 109-22.
- 유상희,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2) (2019): 155-84.
- 유재성, "상담과 코칭의 분리-통합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2009): 95-120.
- Sobell, L. and others, "Natural Recovery from Alcohol and Drug Problems: Methodological Review of the Research with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ddiction* 95(5) (2000): 749-64.
- Tedeschi, Richard and Lawrence Calhoun,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292 복음과 실천(제65집, 2020년 봄)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2004): 1-18.

### 3. 기타 자료

「동아일보」, 2014년 3월 20일.

「동아일보」, 2016년 5월 21일.

「동아일보」, 2019년 3월 21일.

「동아일보」, 2019년 3월 25일.

「동아일보」, 2019년 11월 19일.

「동아일보」, 2019년 12월 4일.

「조선일보」, 2016년 3월 6일.

「조선일보」, 2018년 5월 7일.

「중앙일보」, 2019년 11월 9일.